

나의 가장 사적인 모빌리티(Mobility)

— 김봉곤 단편소설에 나타난 퀴어 연애의 동선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 신 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봉곤의 단편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공공 공간과 사적 장소 사이를 떠도는 퀴어 연애의 이동성(mobility)을 조명하는 것이다.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의 공공 공간 간의 관계가 연구 대상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도시 거주자들이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편, “능동적·집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도시를) 스스로 규정해나갈 것”을 선언했던 르페브르의 도시 권리 담론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간의 주체들은 무성적 존재로 포착되었을 뿐 실제 집단 속에 존재하는 “성애화된 몸들(sexualized bodies)”에 대한 주목은 드물었다. 이로 인해 가부장적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을 둔 실세계의 공간 규율은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신체들은 공적 논의에서 주변화되었다. 도시 공간의 성적 타자들(sexual others)은 “공론 영역에 들어가거나 이를 설립할 능력을 박탈”당한 채 사적 장소성에 속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페브르나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현장>(2004)은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서 처할 수 있는 복합적 억압을 넘어, “차이와 민남”을 토대로 도시를 전유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비가시적인 사(私)의 영역을 가로질러 실세계의 공간 정치에 참여하는 한편, 공공 공간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들의 실천은 당대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0일 개최되었던 한국문학연구학회 제101차 정기 학술대회 <자유 연애/결혼의 환영(幻影)>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셨던 동국대 임세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연세대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표상되는가?

이 글에서는 김봉곤의 「디스코 멜랑콜리아」(2016)를 중심으로 「컬리지 포크」(2017), 「러브 라이프」(2019) 등의 단편소설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퀴어 연애의 동선(動線)과 공간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사적 장소성을 넘어 공공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개방된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수행하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의 궤적을 고찰했다. 이러한 시도는 퀴어 문학 텍스트가 그간 ‘윤리적 거리두기’를 경유함으로써 ‘안전한’ 내면적 의의를 획득했던 것과 달리, 안전시대 ‘너머’를 향한 물리적 확장을 통해 사랑을 확보하기 위한 실세계의 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되짚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사적 장소의 자기동일성을 넘어 공론 영역으로 나아가는 퀴어 연애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1인칭 자기 서술에 집중되었던 최근 퀴어 문학의 경향과 관련하여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외부 세계로의 진출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퀴어 문학, 퀴어 소설, 이동, 광장, 패싱, 퍼레이드, 디스코 멜랑콜리아, 컬리지 포크, 러브 라이프

목차

1. 패싱(passing)과 퍼레이드(parade) 사이의 연애
2. 퀴어 장소성의 확장: 남산타워와 진해탐
3. 연애 공간의 점유: 85년산 포니 픽업-고속버스-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4. 정체성의 장소, 광장이라는 행선지

1. 패싱(passing)과 퍼레이드(parade) 사이의 연애

이 연구의 목적은 김봉곤의 단편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공공 공간과 사적 장소 사이를 떠도는 퀴어 연애의 이동성(mobility)을 조명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이,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의 공공 공간 간의 관계가 연구 대상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¹⁾ 도시 거주자들이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편, “능동적·집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도시를) 스스로 규정해나갈 것”을 선언했던 르페브르의 도시 권리 담론에도 불구하고²⁾, 공공 공간의 주체들은 무성적 존재로 포착되었을 뿐 실제 집단 속에 존재하는 “성애화된 몸들(sexualized bodies)”에 대한 주목은 드물었다. 이로 인해 가부장적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을 둔 실세계의 공간 규율은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신체들은 공적 논의에서 주변화되었다.³⁾ 즉 미혼모·혼외 싱글·레즈비언·게이를 비롯한 도시 공간의 성적 타자들(sexual others)은 “공론 영역에 들어가거나 이를 설립할 능력을 박탈”당한 채⁴⁾ 사적 장소성에 속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페브르나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4)은 비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서 처할 수 있는 복합적 억압을 넘어, “차이와 만남”을 토대로 도시를 전유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⁵⁾ 그렇다면 비가시적인 사(私)의 영역을 가로질러 실세계의 공간 정치에 참여하는 한편, 공공 공간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들의 실천은 당대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는가?

한편 최근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권리를 둘러싼 성적 반체제자들의 공간적 교섭이 연애라는 매개를 통해 “변두리로부터 도시 중심

1) 김현철,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쿼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 2015, 15-16면.

2)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2009, 52면.

3) 김현철, 앞의 글, 15면. 이성애정상가족규범이란 “이성에 및 정상가족의 형태를 일관되고 특권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제도, 이해방식의 구조, 실천적 지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성원,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쿼어 정동정치-한국 쿼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 2019, 14면 참조.

4)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2002, 91-92면.

5) Lefebvre, *Right to the City*, Kofman, E. & Lebas, E. (eds. and translator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6, pp.65-179; 강현수, 앞의 글, 48-53면;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4), 민주인권포털(<http://www.gjhr.go.kr>).

으로 스스로를 귀환”시키거나, “빼앗겼던 도시를 재탈환”⁶⁾하는 시도로써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기든스가 언급한 바 있듯이 연애란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생성되는 친밀성이자, “평등한 두 사람 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협상”이다. 즉 연애란 상호개인적(inter-personal)인 동시에 “새로운 욕구와 불안들을 생성하는 개방된 기획(open project)”인 것이다.⁷⁾ 이러한 연애라는 기획은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거나 새로운 만남의 추구 및 욕구의 유포에 입각하여 도시 공간을 점유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반체제자들로 하여금 사적 존재화를 넘어 공론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이때 성적 반체제자에게 있어서 공공 공간에 진입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개방에 의해 야기되는 배제의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기반을 둔 실세계의 규율 하에서, 이들이 고유한 욕구의 수행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란 어려우며, 타인의 세계와 접촉했을 때 그것이 자아에 대한 친밀한 지지점(支持點)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제의 위험은 성적 반체제자들로 하여금 공공 공간에서의 정체성을 위장하는 패싱(passing)과 더불어, 타자의 시선이 침투할 수 없는 밀폐된 장소에서만 정체성의 퍼레이드(parade)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지하듯이 패싱은 인종주의적/이성애중심적 질서를 교란하는 정체성의 ‘행세’를 의미한다. 이때 성적 반체제자들이 이성애자 행세를 하는 것은 “내면의 일탈로 인한 모호성”을 은폐하고 정상성에 부합하는 외양을 연출함으로써, 공공 공간에서의 사회적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패싱은 일견 정상성으로부터 어긋난 욕구들을 침묵시킴으로써 이성애정상가족규범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지만, 개개인이 담지한 억

6) 강현수, 앞의 글, 57면.

7)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황정미 외 역, 새물결, 1996, 27, 36-37면.

압된 정체성들을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므로써 그 자체로 섹슈얼리티의 비결정성을 노출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⁸⁾ 한편 성적 반체제자들의 퀴어 퍼레이드는 “공간에 각인된 이성애지배적인 젠더/섹슈얼리티 가치에 전도를 시도하는, 커밍아웃 스펙트럼의 최전선에 있는 세계화된 운동 전략”이다. 퀴어 퍼레이드는 “공공 공간인 거리를 일정 시간 점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신체 및 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며 걷고 춤추는 집단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⁹⁾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퀴어 퍼레이드는 서울에서 15회 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성적 혐오”의 표출 및 강제적 성 정체성 폭로(outing)라는 위험 요소들로 인해,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는 커밍아웃 스펙트럼의 최전선이 아니라 밀폐된 장소에서 사적 존재들이 수행하는 “그들만의 축제”로서 공공 공간에서 그 존재를 탈각시킬 것을 요구받아 왔다. 이러한 공간통치로 인해 성적 반체제자들은 공공 공간에서의 패싱을 수행하는 한편, “집·찜질방·게이바”와 같은 ‘안전한’ 사적 존재화의 경계 내에서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방하게 되었다.¹⁰⁾

그러나 바디우가 언급했듯이, 모든 연애는 “사전에 도모된 안전망”이나 “위험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사적 장소에 타인을 초대하는 순간 그곳은 험벗은 자아에 대한 평가·협상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될 것이며, “자아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 자체가 개개인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연애가 정체성의 개방을 통해 “있는 그대로

8)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인종의 젠더 계보학과 타자의 정치 윤리학-넬라 라슨의 『패싱』과 레비나스의 얼굴」, 『인문학연구』 17, 2010.6, 182-184면.

9) 김현철, 앞의 글, 19면.

10) 김현철, 앞의 글, 22-23면. 이와 관련하여 임세화는 “퀴어 축제나 선언(커밍아웃)이 일상 영역에서 가시화될 때, ‘불편함과 혐오감’을 이유로 그들을 다시 이질적이며 특수한 존재로 환원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세화, 「페미니즘, ‘정확한 희망’의 임계: 『소녀들-K-pop 스크린 광장』, 여이연, 2017,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017, 『민족문화사연구』 65, 2017, 337면.

의 차이”에 대한 상호 인식을 축적함으로써 생성되는 “진리의 질차”라면, 성적 반체제자들 또한 실존적 위기를 돌파하여 공론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차이를 가시화했을 때, 비로소 퀴어 연애를 사적 경계 내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진리 구축의 한 형태로서 세계 질서 속에-국립국어원의 사전 속에- 등재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¹⁾

이 글에서는 김봉곤의 「디스코 멜랑콜리아」(2016)를 비롯한 몇몇 단편 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작품에 나타난 퀴어 연애의 동선(動線)과 공간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적 존재화의 경계를 넘어, 공공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개방된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수행하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의 궤적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퀴어 문학 텍스트가 그간 미성숙과 패배와 순교와 애도로 점철된 ‘윤리적 거리두기’를 경유함으로써 ‘안전한’ 내면적 의의를 획득했던 것과 달리,¹²⁾ 안전지대 ‘너머’를 향한 물리적 확장을 통해 사랑을 확보하기 위한 실세계의 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되짚는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2. 퀴어 장소성의 확장: 남산타워와 진해탑

바디우에 따르면 연애는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동일성”을 넘어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며, “타자로부터 비롯되는 심오하고 진실된 경험들”을 추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한다.¹³⁾ 바디우의 이러한 논의는, 김봉곤의 퀴어 문학작품에서 타자와의 연애가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과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상기할 때 흥미롭다. 가령 「컬리지 포크」(2017)에서 일본 유학생이 연애 대상을

11) 알랭 바디우, 『사랑 예찬』, 조재룡 역, 길, 2010, 18-19면.

12) 김건형, 「2018 퀴어전사-前史·戰史·戰士」, 『문학동네』 25권 3호, 2018, 4-10면.

13)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8, 26-27면.

포착하는 과정은 교토라는 “이형(異形)” 공간의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과 교차된다. 즉 「컬리지 포크」에서 연애 대상인 에하라 교수는 “덜 익은 유자 냄새를 풍기고 다선으로 거품을 낸 말차를 마시는” “아버지 세대 같은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에하라 교수의 면모는 “쇼와(昭和)를 환기하는 물건과 식물”로 가득 찬 청결한 고도(古都) 교토의 “레트로”한 풍모와 상통한다.¹⁴⁾ 한편 「리브 라이프」(2019)에서 ‘나는 관심 가는 남성이 “나고 자란 부산에 대해 떠올리는데”,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다”는 이유로 해운대의 호텔을 예약한 후 “광안리 삼익비치타운과 뱃나무와 유수 풀장”으로 구성된 “그의 유년 풍경”을 탐색하기에 이른다.¹⁵⁾ 요컨대 연애의 가능성을 지닌 타자에게 눈길을 준다는 것은 낯선 공간을 탐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타자를 생성해 낸) ‘다른 공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 김봉곤 소설의 인물들은 자기동일적 장소성을 넘어 외부 세계로의 물리적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한편 공간(space)/장소(place)에 대한 이-푸 투안의 이론은, 연애가 지니는 위와 같은 특성을 심화시킨다. 이-푸 투안에 따르면 공간과 장소는 생활 세계의 기본 구성요소인데, 공간이 “개방성, 무한함, 광활함”을 느끼게 하는 “자유 혹은 위협”의 추상적 속성을 담지한다면, 장소는 “식량, 물, 휴식, 번식 등 생물학적 필요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지”이자 “경험과 아우라”가 부여된 “안전(security)과 안정(stability)”의 속성을 띤다. 공간이 낯선 움직임의 경험을 하는 곳이라면, 장소는 정지를 통해 공간에 표시를 하고 침입자를 방어하며, 명명(命名)을 통한 의미화와 친밀화를 도모하는 곳이다.¹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소란 인간의 실존에 내재하는 “본원적 정체

14) 김봉곤, 「컬리지 포크」, 『문학동네』 24권 2호, 2017, 3, 6, 9면.

15) 김봉곤, 「리브 라이프」, 『문학동네』 26권 3호, 2019, 9, 21면.

16)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외 옮김, 대운, 2007, 15-20면;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옮김, 논형, 2005, 54-55면; 하신애, 「한국문학의 공간·장소와 헤테로토피아의 모험」, 『민족문학사연구』 66, 2018, 399면.

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듭난다. 어떠한 장소에 정주(定住)한다는 것은 에드워드 켈프의 언급처럼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자,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때 연애란 확고하게 자리 잡힌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넘어 “사물의 질서”를 두 사람을 위해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이며, 낯선 공간으로 진입함으로써 그간 구축해 왔던 독자적 경험과 아우라를 탈중심의 위협에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낯선 공간-타자와의 조우로 인한 위협을 회피하고자, “데이팅 앱”을 통해 고통 없는 사랑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바디우는 현대인들이 사적 장소에 틀어박힌 채 “앞으로 도모할 일을 계산하고, 파트너의 각종 정보들을 조사하고 조합함으로써 위험부담이 없는 사랑”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위험 제로” 사랑을 통해 현대인들은 “보험 계약서의 안전과 제한된 쾌락이 가져다주는 안락”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특히 연애 욕구의 개방으로 인해 사회적 혐오 및 강제적 성 정체성 폭로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성적 반체제자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의 ‘안전한’ 사랑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컬리지 포크」에서 묘사되듯,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입각한 공공 공간의 규율 하에서는 성적 반체제자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손쉬운 위협”으로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우의 판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안전과 안락이야말로 “사랑의 두 가지 정적(政敵)”이다. 위협이 부재하는 체제에서 존재에 부여하는 이런 식의 소비는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사전에 도모된 개인의 안전망 속에서는 타자와의 충돌·협상을 통한 성장 가능성마저 회피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17) 에드워드 켈프, 위의 책, 93-102면.

18)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5-20, 34면.

19) 김봉곤, 「컬리지 포크」, 앞의 글, 12면.

대의 사랑은 “소비의 달콤함”과 “열정의 절약”을 넘어 재발명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들은 사적 장소의 ‘안전한’ 자기동일성을 넘어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외부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공론 영역 내부에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리를 구축해야 한다.²⁰⁾

이때 「디스코 멜랑콜리아」(2016)의 서사가 사적 장소의 안전한 쾌락을 넘어, 낯선 공간에서 구축되는 타자와의 모험적 사랑으로 이행하는 궤적을 선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우선 김봉곤의 소설에서 쿼어 연애는 종종 데이팅 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자. 가령 「컬리지 포크」에서 ‘나’는 “데이팅 앱을 다운받아 가짜 나이와 가짜 몸무게, 가짜 사진”을 업로드한 후, “하반신만 봐도 얼굴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남자들”의 프로필을 클릭한다. 또한 ‘나’는 에하라 교수의 “신체 사이즈, 섹스 포지션, 원하는 남자 스타일, 음식 취향”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들을 파악한 끝에, “내가 그의 타입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수학”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러한 “정보량의 우위”를 토대로 “전혀 비판적이지 않은 기다림의 감각”을 확보했으며,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위험천만한 짓”인 쿼어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안전하게 수행하게 되었다.²¹⁾

「디스코 멜랑콜리아」가 선보이는 연애의 시작점 역시 위와 다르지 않다. 작중인물인 곤은 데이팅 앱에서 테드의 사진을 처음 보았으며, 테드가 “수시로 나의 프로필에 드나들며 메신저 아이디어를 알려준” 덕분에 즉석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위험이 부재하는 체제”로부터 시작된 연애가 “소비의 달콤함”과 “열정의 절약”으로 점철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실제로 곤은 “서울역 고가” 아래에서 테드에 의해 픽업된 이후, 일회적이며 소비적인 향유의 순간을 맞이한다.

20)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7-20, 32면.

21) 김봉곤, 「컬리지 포크」, 앞의 글, 2, 11-12, 15면.

볼링셔츠가 유행했던 여름이었어. 유행하지 않았어. 그저 그 옷을 그 옷의 명칭을 알게 된 여름이었을 뿐이지 백만 년 전에도 볼링셔츠는 있었을걸? 그나마 당신의 캔디 스트라이프는 어쩔 이리도 익숙하고 뻘하고 무책임한 시작으로 제격인지. 빠져버리기에. 반론할 마음이나 변명할 힘도 없고 85년산 병아리콩색 포니 픽업에서는 비치보이스와 로빈의 노래가 잇달아 흘러나오는데 나는 이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차에 올라탄 내게 굳이 안전벨트를 매주겠다고 내 가슴을 팔꿈치로 지그시 눌러대고, 읊시. 목덜미에서 느끼한 향기-아마도 니치향수, 머스크와 시트러스의 조합이라니 느끼한 레몬을 떠올려 봐!가 올라오는데 어쩐지 깨물어줘버리고선 사랑한다 느끼게 해주고 싶다. 최악이래봤자 뺨을 처맛고 나가떨어지기밖에 더하겠니. (중략)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마음이 앞선다.²²⁾

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니치한” 정체성과 취향을 공유하는 테드를 두고 “이 정도니까 우리가 만나졌음”을 상기하며, 위험을 넘어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정보를 토대로 조성된 만남에서는 정체성/취향의 불일치나 연애 욕망의 거부, 강제적 성 정체성 폭로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85년산 병아리콩색 포니 픽업”이라는 밀폐된 장소는 곤과 테드로 하여금 쿼어 정체성을 개방하고 성적 쾌락을 속행하도록 하는 무대로 작용한다. 즉 곤은 포니 픽업 내부에서 비치보이스의 노래와 더불어 캔디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테드의 신체를 향유하고, “이빨로 수염을 잡아당기는 남자들의 장난”을 수행함으로써 “아무렴 너는 나와 자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익숙하고 뻘하고 무책임한 시작”을 연출한다. 이때 곤이 말하는 사랑은 “만남의 황홀”에 의해 점화되는 쾌락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과 달리 섹스에서 타자는 자신의 “쾌락의 실재를 발견”하는 데 소비될 뿐이며²³⁾, “사람이 땀한 곳에

22)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실천문학』, 2016.12, 182, 184면.

서 가로등까지 피한 채” 전개되는 이들의 키스는 동일성 너머 타자와의 결합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실제로 테드의 신체는 곤의 쾌락에 복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착되는데, 가령 곤은 테드의 턱수염을 두고 “이 수염은 나 좋으라고 난 거야?”라는 자기중심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요컨대 곤과 테드가 동승한 “85년산 병아리콩색 포니 픽업”은 낯선 공간-타자에 대한 탐색이라는 고통을 회피한 채, 각자의 ‘익숙한 질서’ 하에 빠르게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애(自己愛)의 장소로서 가시화된다. 이러한 포니 픽업의 장소성은 “플래카드를 든 분노한 사람들”이 가득한 “서울역사(驛舍)”의 부산한 위협감과 대조되는 ‘편리한 안전감’을 선사하는 한편으로, 85년산/병아리와 같은 이들 캐릭터가 담지할 수밖에 없는 미성숙함이나 자기동일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⁴⁾

그런데 포니 픽업 내부에서 곤이 향유하고자 했던 “위험 제로”의 쾌락적 미래는, 테드가 뜻밖에도 “핸들을 꺾어” 남산타워로 향하는 순간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그가 힐튼 쪽으로 핸들을 꺾었을 때는 조금 당황했다.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중략) 불현듯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마다 하게 되는 망상 속에서 (여태까진 망상이었지만!) 특히나 이 차 안에 서라면 나는 그에게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죽겠구나. 하면서도 그를 따라간다. 그것 역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스틸이야? (중략)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 리 없다는 생각에, 어 그래 넌 쓰레기일 거야. 존나 성격 파탄에 사람 등쳐먹고 잠수 타는 그럽고 그런 이 바닥의 뻘한 병신일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난 걸 거야 응?

23) 알랭 바디우, 앞의 책, 28-29면.

24) 김봉곤, 「디스코 멜랑콜리아」, 앞의 글, 183-184, 187-188면. 김봉곤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전개하는 자전소설(autofiction) 기법을 상당수 선보였으며,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곤이라는 캐릭터는 작가의 이력과 상당 부분 겹쳐진다. 작가는 실제로 85년생이다.

하지만 그가 너무 마음에 들어 몸이 덜덜 떨린다. 당신이 나를 만난 이유를 알 수 없고 헤어질 때까지도 알 수 없을 것이며 헤어져서도 모르겠지. 그렇다면 너도 알 수 없었으면 좋겠다.²⁵⁾

이들의 목적지가 남산타워라는 공공 공간으로 변경되는 순간, 이들의 즉석만남은 “내 왼손을 테드의 양손으로 쥐는” “데이트 비슷한 것”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이러한 낯선 공간으로의 초대는 “안전한 쾌락”의 기대에 머물렀던 곤으로 하여금 즐거운 성적 소비의 궤도로부터 이탈하여, 타자로부터 기인하는 시련의 범주 내에 포섭될 위기에 놓이도록 한다. 가령 이 데이트는 자신의 쾌락에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테드를 “자아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이자 상이한 기준을 가진 개별자로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서로에 관한 판단을 주고받아야 하는 인격적 관계 형성의 단계로 곤을 내몬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곤은 “나를 만난 이유”를 둘러싼 타인의 기준에 대해 추론한 끝에, “이 바닥의 병신”일 게 뻔한 타인의 공간 속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쾌락을 넘어 사랑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 타인과의 대면은 밀폐된 장소에서 전개되었던 쿼어 정체성의 디스코/퍼레이드를 넘어, ‘자신이 아닌 자’의 시선 앞에서 전개될 공공 공간에서의 멜랑콜리아/패싱으로 전이된다. 이처럼 예비된 위협감을 담지한 낯선 타자/공간에 직면하여, 곤은 스스로의 욕구와 목적을 내려놓는 한편 “아는 척과 모르는 척”을 오가며 상대방의 정체를 탐색함으로써, 차이에서 비롯된 외부 세계의 무한함과 광대함을 애써 헤아려야 한다.

이후 전개될 남산타워 산행(山行)에서, 곤은 테드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 공간에서의 몇몇 퀘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어깨동무를 하다가 “자전거 부대가 내려오는 바람에 금세 몸을 떼어야 하는” 패싱은

25) 김봉곤, 「디스코 멜랑콜리아」, 앞의 글, 185-187면.

물론이고, “미친 매미가 밤에 울어대는 것만큼 급한” 욕망의 수위를 “아닌 척” 조절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남산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에서, 곧은 타인의 취향으로 인한 “싫은 티”를 누그러뜨림으로써 동일성과 차이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각기 다른 “이름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타자와 더불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 남산을 가는 것도 웃기지만, 곧이 산길을 택하는 건 뭐니. 투덜대고 싫은 티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가 결국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 그 무엇이 실망스러운 것 태반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또 속는다 속아본다 제발 좀 속여봐라. (중략) “나도 되게 오랜만에 여기 와봐요. 누군가랑 이렇게 데이트 비슷하게 하는 것도 간만이고.” (중략) 그가 슬쩍 붙어 서서 어깨동무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부대가 줄지어 내려오는 바람에 금세 몸을 떼어야 했다. 테드도 불필요한 말을 했다고 느꼈는지 더는 말을 꺼내지 않고 묵묵히 계단만 올랐다. 미친 매미는 밤에도 울어대고 매미만큼 급한 나도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데, 바지는 계속 감겨오고 도무지 이 계단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곧 씨, 곧 씨는 여기가 고향 아니겠죠?”

“네. 서울 산 지 몇 년 안 됐어요. 형은 어디 사람이예요?”

“태어난 집에서 아직까지 살아.”

“와 진짜 개부럽다. 여러모로.”

그는 서울 출신만이 할 법한 이야기들-사대문 안에서 의무교육을 마쳤다. 서울문고를 아느냐. 피맛골에는 무어가 맛있었다-을 늘어놓는데 이게 이슬이슬하게 상경 전에 사라진 것들이거나 관심이 없어서 지나친 장소들인 게 분했다. (중략)

결국엔 바짝 붙어 좋은 기분으로 팔각정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게 다였다. 정말로 그게 끝이었다. (중략) 인파에 밀려 자물쇠 꾸러미 난간에 바짝 붙어서서 서울 야경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게 다라고? 아

니 우리 조만간 할 거지만 이게 다라고? (중략) 나는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 꾸러미를 힘껏 발로 차버렸다.

다시금 생각해도 그가 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우리는 남산에 함께 올라왔고, 내가 이려고도 당신을 건널 수 있겠다는 사실 정도가 내가 얻은 전부였는데, 이게 원하던 거였나 자문해보면 마치 탁월한 선물처럼, 정말 간절히 원했다 착각이 드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난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래, 다 됐고. 됐지만. 이게 정말 다라면

내가 너랑 사랑하거나 망하면 글이라도 쓴다.²⁶⁾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남산타워 산행이라는 퀘스트는 곧이 당초 욕망했던 ‘안전한 쾌락’이라는 목적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다. 이 퀘스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생물학적 욕구의 빠르고 편리한 충족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낮은 공간에서 엄습해오는 타인의 취향과 경험 및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심신의 불편함인 것이다. 이 모든 차이를 겪어낸 이후, 곧이 “탁월한 선물”과 같이 얻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의 아름다움”인 것으로 제시된다. “간절히 원했다 착각이 드는” 서울 야경은, “이름과 고향이 다른” 두 사람이 자기 동일성의 안락함을 넘어 외부 세계의 불편함과 위협에 함께 대응한 끝에 생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서로에게 “내가 이려고도 **당신을 건널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수평적 사랑의 증표로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생소한 사랑의 체험은 서울 야경만큼이나 “존나 멋진” 무언가를 테드에게 선사하기 위해, 곧이 더 넓은 세계로의 도약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남산타워를 향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테드가 소개해 준, “서울 출신”만이 알 수 있는 유년의 풍경들-서울문고, 피맛골, 어린이회관-은 곧이로 하여금 부러움과 더불어 “분한 느낌”을 맛보게 한다. 테드

26)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88-190면.

가 소개한 유년의 풍경들이 경험과 아우라의 축적에 입각하여 “본원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장소성의 가치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남산타워와 나란히” 백과사전에 실릴 만한 “제 고향 진해탑”을 소개하는 곤의 면모는 그간 구축해 왔던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세계의 확장된 장소로서/상대방과 대등한 입지 하에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유년기 풍경에 대한 탐색 끝에 포착되는 각자의 정체성을 “백과사전”에 등재하고자 하는 이들의 면모는, “차이의 프리즘을 거쳐” 구축된 타자와의 사랑을 공론 영역에 평등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또한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정체성 장소를 탐색하기 위해 낯선 공간 질서를 가로질러 “같이 갈 것”을 결의하는 대목은, 쿼어 연애로 하여금 “포니 픽업”으로 형상화되었던 사적 장소의 자기중심적 경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 진입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 서울 진짜 좋지?” (중략) “진짜 제 고향에도 남산타워만큼 존나 멋진 타워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게 유명했겠지. 난 처음 들어봐.” “그게 타워 백과사전 같은 데도 실렸다니까. 남산타워랑 나란히! 이거 진짜 미치겠네. 한번 같이 가실래요? 진짜 좋은데? 거 뭐냐 거기선 아마 일본도 보일 걸요?” “아, 네, 뭐 좋아요. 갑시다 가봅시다!” “진짜요? 나 표 플는다?” (중략) 나를 좋아해달라고, 나의 어떤 부분을 발견해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거의 조급증에 시달리고. (중략) 내가 유년의 답에서 남산타워까지 선을 긋는 상상을 한다는 걸 말해줄 수 있을까. (중략) 이 거리와 도시에서 겪었던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재밌어질 때를 난 기다리고 있어.²⁷⁾

27)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90-192, 198면.

3. 연애 공간의 점유: 85년산 포니 픽업-고속버스-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산타워-진해탑이라는 경험의 집합체로서 확장된 정체성을 선보였던 곤과 테드의 여정은, “85년산 포니 픽업”이라는 사적 장소성의 경계를 넘어 고속버스-서울역 광장이라는 공공 공간에 이르러 쿼어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때 곤과 테드가 선보였던 사랑은,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물의 질서를 각기 다른 두 사람을 위해 새롭게-서울 야경만큼이나 아름답게-재편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평등을 창조해내는 정치적 과정”과도 겹쳐진다.²⁸⁾ 그렇다면 곤과 테드가 생성해낸 사랑이라는 대등한 인격적 관계는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세계로 향한 길 위에 유포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평등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방된 기획(open project)”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²⁹⁾

공공 공간의 점유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85년산 포니 픽업” 밖으로 나선 곤과 테드의 연애가 실세계의 규율이 부과하는 동일성의 압박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낮선 타자/공간을 탐색하고자 고속버스에 탑승한 이들은 “기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한편으로 “불안하고 위태롭고 말이 안 되는” 인상을 지우지 못한다. 즉 이들은 사적 운송 수단의 장소성을 벗어나 공공 모빌리티 내부로 진입한 이후 “묘하게 수동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이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지 못하고 손만 주는” 면모를 보인다. 도래할 이성애/정상가족의 시선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있는 그대로의 타자”로 수용되기란 요원하고, “버르고 버르던 그와의 여행”을 떠나는 쿼어 연인들은 언제나 “버스에 커튼”이 있는지, “우리 눈엔 명백히

28) 알랭 바디우, 앞의 책, 66-71, 97면.

29)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7, 36-37면.

커플룩인 저지”가 “남들에게 유니폼으로 보일지”, “이곳에서 친척과 맞닥뜨리지는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³⁰⁾ 나아가 연인과 함께하는 고향 방문을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하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윤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시그널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마련인 것이다. 실제로 테드를 끌고 “터미널로 가서 표를 끊었던” 곤의 과감한 결단은, “그냥 자버렸어야 했는데 한 발짝 더 나갔더니 이제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소회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성애정상가족규범의 예비적 위협으로 인한 여정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시점은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간” 직후이다. 즉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큰 길가”라는 외부 세계로의 도약을 계획했던 이들은, “카드키를 꽂기 전 어둠”으로 표상되는 도시의 비(非)가시적 지점으로 회귀했을 때 비로소 쿨어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수행한다.³¹⁾

그가 열쇠를 돌릴 때 이미 나는 그를 완전히 품에 안았고, 카드키를 꽂기 전 잠시의 어둠 속에서 키스와 커들링, 배와 서로의 앞섰을 비비다가 또 웃는다. (중략)

커튼 안쪽으로 빛이 조금씩 새어들고 방 안은 어항처럼 빛이 차오른다. 긴장감 없이 나는 이제 그를 안을 수 있고, 마치 익숙한 사이처럼 지난 모든 남자들을 소환해 혼자 하는 파르투즈(partouze)-누군가를 떠올리며, 동시에 그만을 떠올리며 등을 감싸 안고, 잠결에 너는 돌아눕고 나는 그의 품에 안긴다. 그가 내뿜는 숨소리, 폐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피 냄새, 그가 들을 수 없는 내장이 운동하는 소리, 나는 귀를 가슴에 얹고 모든 것을 느낀다. (중략) 그의 숨소리는 일정하고, 이 시간과 기분은 건디기 힘들고, 그럼에도 그의 체온을 저장해두고 싶은 나는 그에게 몸을 붙였다. 다시 떨어뜨린다.

30) 김봉곤, 「러브 라이프」, 앞의 글, 2, 6면.

31)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91-194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들을 그러모았다. 언젠가의 만남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옷을 개켜 가지런히 정리해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테드의 옷도 가지런히 접었다.³²⁾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텔이라는 밀폐된 지점에서 개방된 이들의 정체성은 “키스와 커들링”으로 표상되는 성적 소비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유년기 풍경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한 이들은 자기중심적 쾌락을 넘어, 상호 관계를 둘러싼 의미화와 친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가령 곤은 “테드를 떠올리며 등을 감싸 안거나” “귀를 가슴에 얹고 상대의 모든 것을 느끼거나” “테드의 옷들을 그러모아 가지런히 정리”해 주는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섹슈얼리티와 별개로 행해진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곤과 테드는 서로에게 인격적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친밀한 관계로서 거듭난다. 이는 곤으로 하여금 테드의 체온을 자아의 일부로서 “저장”해두고 싶다는 소망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모텔은 사적 행위를 수행하는 밀폐된 지점이기는 하나 행위들이 주체에게 “본원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경험이나 아우라로 축적되지 못하며, 안전감 및 안정감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일회성’ 시공에 그친다는 측면에서 무장소성(placelessness)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³⁾ 그렇다면 그 어떤 행위도 정체성의 일부로서 축적되지 않는 모텔이라는 무장소성에 입각하여, 이들은 실제로 어디에 서로의 체온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을 확보할 실세계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로 이들은 “몸을 붙였다 다시 떨어뜨리고”, 곧 종료될 일회성의 시공(時空)으로 인한 “기분은 견디기 힘들다.”

32)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94-196면.

33) 'placelessness'는 '무장소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데, “장소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익숙해질 수 없는 장소를 대하는 주체의 태도와 의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용무,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국문학』 56집, 2014, 229-260면; 이경재, 『한국 현대문학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2017, 17면; 하신애, 앞의 글, 397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은 테드에게 자신의 여름옷을 가져다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의 집”으로 향한다. 고향은 “혼자 나섰을 때 부끄럽지도 끔찍하지도 않고”, 퀴어 연인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할 말이 생긴” 곤은 “엄마와 마주치지 않게” 주의하며 텅 빈 집으로 들어간다. 비규범적 섹슈얼리티/정체성을 은폐한 채, 타인의 평가로부터 한순간 자유로워진 곤은 “창가로 가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여유를 누린다. 그럼에도 곤은 고향집이 아닌 모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테드에게 “쓸 만한 여름옷”을 꺼내 가져다줄 것이고, “언젠가 내 유년의 도시에 정식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이후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곤은 비로소 “허리에 힘을 빼고 그의 어깨에 기대고”, 어깨를 내어주는 테드의 행위와 더불어 “편한 위치”로서 재정위된 열차의 공간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던” 곤은 마침내 깊이 잠들 수 있다.³⁴⁾

산란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열차는 서울역 플랫폼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상아색 타에 냉동창고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내려서 자마자 후텁지근한 열기와 쇠소리에 서늘함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중략) “근데 우리 왜 갔다 온 거야?” “몰라요. 그냥 20만 원짜리 여관 갔다 왔다고 생각할래요?” (중략) “이제 어디로 가요?” 기대는 하지 않고. 그는 자동차를 찾으러 다시 남산으로 갈 것이라 말하며 모자를 고쳐 쓰는데 역시, 너무, 잘생겼다. 환승센터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한다.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러는 사이 간다. 그는 모르는 사람처럼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다시 올라온다.

“왜요?”

라고 묻는 내게

34)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96-199면.

다가와 그는 내 불에 아주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데 너무 좋아서 광대가 아플 지경인데 그렇게 한껏 좋아지는 기분 가운데 그의 뒷모습을 본다. 어, 내 옷을 입은 당신이 저기 걸어간다. 내 옷을 입은 남자를 보는 건 언제나 행복하게 야릇하고, 이 숨막히게 덥고 사람으로 가득 찬 광장 속에서 오직 아는 사람이 너뿐이라는 사실이 어이없게 든든한데 그가 다시 돌아 손을 흔드는 모습을 나는 언제나 보았던 것만 같고, 그건 반복되는 토포스거나 사실 나는 당신을 이미 마흔 번쯤은 사랑해본 적이 있는 것이고, 언제나 기대했던 기시감으로 넘쳐나는 지금 이 순간, 그런 기시감과 패턴만을 사랑해왔던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해버린다. 너는 다시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간다. (중략) 정신을 잃을 만큼 습하고 더운 울여름을, 소월길의 안개와 승강장의 바람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 계절을 주고 싶다. 날 씨를 주고 싶어, 그건 내가 아는 최고의 선물이고

당신과 나 사이 가로놓인 마이크 쥬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나도 간절히, 너에 대한 글은 쓰고 싶지 않다(중략) 너는 이제 402번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데, 당신의 눈으로 보는 나도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런 나를 내가 보는데, 그건 다시를 다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당분간 병이 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어제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지, 그리고 그런 내가 정말이지 오랜만에 싫지 않았다.³⁵⁾

서로의 유년과 고향을 향해 도약한 이후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도시에서 겪었던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공유할 태세를 갖추었던 이들은, “냉동창고”를 연상케 하는 서울역의 압도적 풍경과 대면한 이후 다시금 “용기가 나지 않는” “소침한” 상황을 맞이한다. 나아가 “서울스퀘어와 세브란스빌딩”으로 표상되는 공공 공간의 질서로 인해 위축된 곤과 테드는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를 탐색하고자 했던 양자(兩者) 간의 모험을, “20만 원짜리 여관 갔다 온 것”에 불과한 무장소성의 일회성 사건으

35)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99-201면.

로 축소시키기에 이른다. 서울-진해라는 외부 세계의 공통 경험에도 불구하고, “85년산 포니 픽업”을 찾으러 “다시 남산으로 갈 것”을 언급하는 테드의 면모는 익숙한 자기동일성의 장소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처럼” 멀어지던 테드가 재차 다가와 곤의 볼에 공개적으로 입맞춤을 했을 때, 뜻밖에 전개된 정체성의 퍼레이드는 “피켓과 플래카드”로 가득한 서울역 광장을 쿼어 연애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점유한다.³⁶⁾ 아울러 “사람들이 가득 찬 광장”에서 “내 옷을 입은 남자”를 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세계를 보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내게 인식”시키며, 사랑은 이 순간 자기동일성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서로와 함께 존재하는” “둘에 관한 진리”로서 구축된다.³⁷⁾ “내가 보는 나”와 “당신의 눈으로 보는 나”가 맞물려 이자적(二者的) 진리로서 성장한 쿼어 연애는 “습하고 더운 울여름과 소월길의 안개, 승강장의 바람”과 맞물려 세계를 향해 유포됨으로써, 사랑을 창출하기 위한 고유한 계절과 날씨와 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로 향한 길’ 위에 위치한 쿼어 연애는 공론 영역에서 “마이크 쥬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전개될 쿼어들의 퍼레이드를 예고한다. 나아가 입맞춤을 통해 성적 반체제성이 담지한 ‘차이’를 개방함으로써 공공 공간을 이성애정상가족구범의 균질성을 넘어선 다자적(多者的)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동일성 너머 평등을 창조해내는 정치적 과정”의 도래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³⁸⁾

36)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184-185, 199-201면.

37) 알랭 바디우, 앞의 책, 34면.

38) 허윤,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쿼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2020, 254-259면; 알랭 바디우, 앞의 책, 65-66면.

4. 정체성의 장소, 광장이라는 행선지

이 글에서는 김봉곤의 「디스코 멜랑콜리아」(2016)를 비롯하여 「컬리지 포크」(2017), 「러브 라이프」(2019) 등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퀴어 연애의 동선과 공간을 추적함으로써, 공공 공간의 점유를 통해 정체성의 퍼레이드를 수행하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의 궤적을 고찰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근대적 남성의 성장 서사에서 동성애적 친밀성은 그것으로부터 거리두기에 성공한 남성적 주체의 성장의 담보물로서, 그것을 지양하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즉 동성애적 친밀성은 “그것이 산출한 성숙의 기회비용에 대한 애도”를 동반할 때에만 가시화될 수 있었고, “황홀했던 합일에 대한 미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기억은 이미-지양된 신파로서 안전하게 “소모”될 때에만 “윤리적 상품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⁹⁾ 이처럼 ‘윤리적 거리두기’를 경유함으로써 ‘안전한’ 내면적 의의를 획득했던 근대 남성 서사의 동성애적 친밀성은, 퀴어 연애의 성장을 위한 물리적 시공간을 창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미진함을 남긴다. 즉 퀴어 연애는 이성애정상가족규범에 부합하는 남성 주체의 성장을 위한 정서적 촉진제로서 소진되기보다는, 그 자체로 사랑이라는 진리 구축의 한 형태로서 세계 내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비가시적 사(私)의 영역을 가로지르고자 했던 성적 반체제자들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김봉곤의 단편소설을 분석함으로써, 동성애적 친밀성이 안전지대 ‘너머’를 향한 물리적 확장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세계의 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되짚고자 했다.

한편 “85년산 병아리콩색 포니 픽업”으로 표상되는 사적 장소성의 경계를 넘어, 고속버스터미널 및 서울역 광장이라는 공공 공간의 점유로 이어지는 「디스코 멜랑콜리아」의 퀴어 모빌리티는 오토픽션(autofiction)이라는

39) 김건형, 앞의 글, 4-10면.

김봉곤 특유의 서사 전략을 상기할 때 의미심장하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자전소설·사소설 등과 혼용되는 오토픽션은 “자신의 퀴어성을 인지·표현하고 퀴어의 자기형성 원리를 서사 자체의 전략”⁴⁰⁾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이다. 오토픽션은 “글쓰기에 대한 침예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퀴어 당사자성에 대한 자기 재현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문학사적 의의를 확보했다고 평가되었다.⁴¹⁾ 이때 오토픽션이라는 서사 전략은 퀴어 당사자의 실존에 내재하는 “본원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한편,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과 아우라”를 바탕으로 기존 이성애정상가족규범과 변별되는 “재현의 언어와 정치”⁴²⁾를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푸 투안의 장소성 개념과 유사한 맥락을 띤다.⁴³⁾ 즉 오토픽션이라는 테크놀로지는 퀴어 소설로 하여금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私的) 장소를 문학 장(場) 내에 생성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⁴⁴⁾

이처럼 뚜렷한 의의와 더불어, 2020년 여름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을 회고할 때⁴⁵⁾, 1인칭 자기 서술로 일관되는 오토픽션은 “전도된 진정성과 나

40) 김건형, 「한국 퀴어소설에 나타난 자기반영적 서술 전략」, 『횡단인문학』 6, 2020, 50면.

41) 강동호, 「비평의 시간- 김봉곤 사건 ‘이후’의 비평」, 『문학과사회』 33(3), 2020.9, 441면.

42) 김건형, 앞의 글, 50면.

43) 이-푸 투안, 앞의 책, 15-20면.

4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3-102면.

45) 2020년 여름 김봉곤 작가는 ‘사적 대화 무단 인용’ 논란에 직면했고, 이러한 논란은 작가의 무단 인용 인정·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표명 및 출판사들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더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를 계기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념”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소재로 기술되는 ‘오토픽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비평적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빠른 사과와 후속조치를 통한 관성적 반성을 반복한 결과 이번 사건의 의미와 원인에 대한 토론 가능성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의 메시지도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동호, 앞의 글, 402-405, 415-419면. 한편 2021년 10월 5일 김봉곤 작가는 법원으로부터 “소설에 자신과의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인용해 명예를 훼손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단 인용이 아니며,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현 시점에 이르러 사건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변화된 매체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념, 오토픽션의 가능성과 한계, 비평적 개입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여전히 마련될 필

르시시즘”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당사자성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을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⁶⁾ 퀴어 소설을 “자기 재현”이라는 사적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오토픽션의 전략은 바디우의 지적처럼,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동일성”에 매몰되어 “차이에서 비롯된 세계”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그렇다면 퀴어 연애가 밀폐된 장소의 자기동일성을 넘나들며 “타자로부터 비롯되는 심오하고 진실된 경험들”을 추구함으로써 외부 세계로 도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퀴어 문학도 “나르시시즘적 자기 탐닉”⁴⁸⁾을 넘어 상이한 기준을 가진 개별자들의 목소리와 충돌하고 협상함으로써,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현된” 외부 세계를 향해 도약할 필요가 있다.⁴⁹⁾ 퀴어 문학 또한 상호개인적인 동시에 “새로운 욕구와 불안들을 생성하는 개방된 기획”⁵⁰⁾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의 기시감에도 불구하고, “소월길의 안개와 승강장의 바람”을 던지고 “마흔 번쯤” 도약함으로써 스스로를 “마이크 쥬 사람들”이 가득한 광장에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⁵¹⁾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소범, 「카카오톡 대화 인용한 김봉곤 소설…법원 ‘무단인용 아니다’」, 『한국일보』, 2021.10.5. 참조.

46) 강동호, 앞의 글, 441면; 강유진, 「남성 퀴어의 정체성성과 소설적 재현-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9호, 2020, 496면.

47) 실제로 인아영은 김봉곤의 글쓰기가 “난 어째서 나인가, 나일 수밖에 없는가, 왜 난 고작 아니며, 나의 기억만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제나 ‘나’에 대한 것으로 수렴되는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아영, 「퀴어-되기를 위한 주제와 변주」, 『2002 올해의 문제 소설』, 문학과지성사, 2018, 164-165면. 한편 “나의 기억”을 근간으로 기술된 오토픽션의 등장인물들이 공론 영역에 등장하여 무단 인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례는, 사적 장소에 초대된 인물들이 여전히 “자아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는” 타자들이었으며, 오토픽션이라는 사적 장소 또한 발화 권리를 지닌 타자들과의 평가·협상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48) 강동호, 앞의 글, 419면.

49) 알랭 바디우, 앞의 책, 8, 17-20, 26-27, 32면.

50)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7, 36-37면.

51) 김봉곤, 「디스코 벨랑콜리아」, 앞의 글, 200-201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봉곤, 「디스코 멜랑콜리아」, 『실천문학』, 2016.12.
김봉곤, 「컬리지 포크」, 『문학동네』 24권 2호, 2017.
김봉곤, 「러브 라이프」, 『문학동네』 26권 3호, 2019.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현장〉(2004), 민주인권포털(<http://www.gjhr.go.kr>).

한소범, 「카카오톡 대화 인용한 김봉곤 소설…법원 “무단인용 아니다”」, 『한국일보』, 2021.10.5.

2. 논문 및 단행본

- 강동호, 「비평의 시간- 김봉곤 사건 ‘이후’의 비평」, 『문학과사회』 33(3), 2020.9, 402-442면.
강유진, 「남성 퀴어의 성적체성과 소설적 재현-김봉곤, 박상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9호, 2020, 496면.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 2009, 52-57면.
김건형, 「2018 퀴어전사-前史·戰史·戰士」, 『문학동네』 25권 3호, 2018, 4-10면.
——, 「한국 퀴어소설에 나타난 자기반영적 서술 전략」, 『횡단인문학』 6, 2020, 50면.
김현철,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 2015, 15-23면.
노용무,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국문학』 56집, 2014, 229-260면.
알랭 바디우, 『사랑 예찬』, 조재룡 역, 길, 2010, 8-97면.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황정미 외 역, 새물결, 1996, 27-37면.
이경재, 『한국 현대문학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2017, 17면.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외 옮김, 대운, 2007, 15-20면.
인아영, 「퀴어-되기를 위한 주제와 변주」, 『2002 올해의 문체 소설』, 문학과지성사, 2018, 164-165면.
임세화, 「페미니즘, ‘정확한 희망’의 임계: 『소녀들-K-pop 스크린 광장』, 여이연,

- 2017,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017, 『민족문학사연구』 65, 2017, 337면.
-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옮김, 논형, 2005, 54-55면.
-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인종의 젠더 계보학과 타자의 정치 윤리학-벨라 라스의 『패싱』과 레비나스의 얼굴」, 『인문학연구』 17, 2010.6, 182-184면.
- 하신애, 「한국문학의 공간·장소와 헤테로토피아의 모험」, 『민족문학사연구』 66, 2018, 397-399면.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2002, 91-92면.
- 허성원,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 정동정치-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 2019, 14면.
- 허윤, 「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2020, 65-66면.

<Abstract>

My own private mobility

– focusing on the movements and spaces of queer relationships
in Kim Bong-gon's short stories (2016)

Ha, Shin-a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bility of a queer relationship that is spreading between the public space and private place by analyzing short stories of Kim Bong-g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issidents and the public space of cities has only recently been recognized as a study subject. Despite the urban right discourse of Lefebvre who declared that city dwellers w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center and "would stipulate (cities) on their own while actively and collectively participating in politics", subjects in public spaces were just captured as asexual existences and there were less attention paid to "sexualized bodies" that exist in actual groups. With this reason, spatial regularity of the real world that is based on patriarchal heterosexual and normal family norms was not highlighted as a problem and the bodies with antinormative sexualities were marginated in the public discussions. Sexual others in the urban space were restrained by private sense of place while "being deprived of the ability to enter the public discourse or to establish this". Nevertheless, <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 (2004) by Lefebvre emphasizes the fact that people with antinormative sexualities have the right to possess the city or to participate in it based on "difference and encounter" beyond complex oppression that can face in the urban spaces. Then, how the practices of sexual dissidents who tried to stipu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pace on their own while participating in spatial politics of the real world across the non-visible private realm were presented in the literatures of the time?

In this paper, we try to movement path and space of a queer relationship that appeared in the work by setting *Disco Melancholia*(2016), *College Folk*(2017), *Love Life*(2019) short stories of Kim Bong-gon as main subjects of the study. Through this, we will examine tracks of sexual dissidents who tried to conduct parade for open identity by occupying the public spaces beyond the private sense of place. This attempt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s back the process of creating spaces of the real world to secure love as truth through physical expansion toward ‘over’ safety zone unlike literature texts which just obtained ‘safe’ inner significance so far by passing through ‘ethical distancing’.

Key words: queer literature, queer fiction, square, passing, parade, disco melancholia, college folk, love life

투 고 일 : 2021년 11월 25일

심 사 일 :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1년 12월 23일